

#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의미 기능과 후행절 유형\*

황 화 상\*\*

본 연구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의 차이를 검토하고 ‘-어서’절과 ‘-니까’절의 후행절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理由)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니까’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契機)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다. ‘-니까’는 계기를 나타내므로 ‘왜?’에 대한 대답에서 쓰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화자가 선행절이 계기가 되어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덧붙여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왜?’에 대한 대답에 쓰여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은 화자 중심의 문장으로서 선행절이 화자의 행위(명령, 제안, 약속, 의향을 물어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체 중심의 문장으로서 선행절이 주체의 행위와 관련되는 평서문, 의문문과 다르다. 그런데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의 선행절은 화자의 행위의 이유가 아니라 계기이다.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에서 ‘-어서’는 쓰이지 않고 ‘-니까’만 쓰이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핵심어: ‘-어서’, ‘-니까’, 연결어미, 어미, 의미, 이유, 계기(契機)

## 1. 서론

흔히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연결어미 가운데 ‘-어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32-A00162).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와 '-니까'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두 형태의 사용 빈도가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sup>1)</sup> 무엇보다도 두 형태 사이의 의미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1~3)은 각각 선행절의 서술어가 동사인 문장, 형용사인 문장, '이다' 문장에서 '-어서'와 '-니까'가 교체되는 예를 보인 것인데 각 쌍의 문장에서 어떤 의미 차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 (1) ㄱ. 비가 와서 시원하다.  
       ㄴ.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  
 (2) ㄱ. 날이 더워서 짜증이 난다.  
       ㄴ. 날이 더우니까 짜증이 난다.  
 (3) ㄱ. 너는 미성년자라서 못 들어가.  
       ㄴ. 너는 미성년자니까 못 들어가.

그런데 '-어서'와 '-니까'가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늘 자연스럽게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에서는 '-어서'를 쓴 문장 (ㄱ)이 '-니까'를 쓴 문장 (ㄴ)보다 더 자연스럽고 (5)에서는 '-니까'를 쓴 문장 (ㄴ)이 '-어서'를 쓴 문장 (ㄱ)보다 자연스럽다.

- (4) 왜 걸어왔니?  
       ㄱ.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어.  
       ㄴ.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왔어.  
 (5) ㄱ. \*길이 진 걸 봐서 비가 왔나 보다.  
       ㄴ. 길이 진 걸 보니까 비가 왔나 보다.

1)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550만 어절 규모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에서는 '-어서'(40,485회)가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으)니까'(11,053회), '-(으)므로'(2,516회), '-느라고'(301회)의 순서로 출현 빈도가 높았다(황화상 2004 참조). 한편 김수정(2004)에 따르면 273,912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총 678회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서'는 43.8%, '-니까'는 18.9%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은경(2007)에 따르면 541,491 어절 규모의 <한국어 학습자용 말뭉치>에서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어서'는 640회, '-니까'는 147회 나타났다.

더욱이 성기철(1993), 윤평현(2005: 173-174) 등에서 지적했듯이 ‘-니까’와 달리 ‘-어서’는 후행절의 문장 유형에 제약이 있다. 곧 ‘-니까’는 후행절이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 보는 의문문일 때에도 쓰일 수 있지만 ‘-어서’는 쓰이지 못한다.

- (6) ㄱ. 아이가 잠을 자(\*아서, 니까) 조용히 해라.  
 ㄴ. 배가 아프(\*아서, 니까) 병원에 가자.  
 ㄷ. 철수가 원하(\*아서, 니까) 내가 양보하마.  
 ㄹ. 비가 오(\*아서, 니까) 우산을 살까요? (윤평현 2005: 173)

이와 같이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는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없기도 하고 후행절의 유형에 따라 쓰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등 그 문법적 속성이 사뭇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가 같이 쓰이는 문장, ‘-어서’가 ‘-니까’보다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 ‘-니까’가 ‘-어서’보다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으로 나누어 두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어서’절과 ‘-니까’절의 후행절의 차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그 의미 기능의 공통성과 다른 연결어미와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주시경(1910), 박승빈(1935), 최현배(1937) 등의 초기 문법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시경(1910: 85)에서는 ‘-어서, -(으)니’가 선행절이 후행절에 ‘까답’으로 이어짐을 나타낸다고 보았고 박승빈(1935: 36-37)에서는 ‘-어서, -니(까)’가 ‘추론’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sup>2)</sup> 최현배(1937: 366-369)은 ‘-어서, -니까’의 의미를 구체적인 쓰임의 차이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세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sup>3)</sup>

(7) ㄱ. ‘까닭’(이유)

눈이 많이 와(와서), 나는 못 가겠다.  
부즈런히 일하니까, 남들이 칭찬하오.

ㄴ. ‘때문’(원인)

눈이 와(와서), 매우 춥다.  
비가 오니까, 풀이 잘 자라오.

초기 문법 연구에서 주로 ‘-어서, -니까’ 두 어미의, 다른 어미와 구별되는 의미적 공통성에 주목했다면 이후의 연구에서는 두 연결어미의 의미 차이, 문법적 쓰임의 차이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왜 어떤 문장에서는 ‘-어서’가 더 자연스럽게 쓰이고 어떤 문장에서는 ‘-니까’가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가?
- ② ‘-어서’와 ‘-니까’가 모두 쓰이는 문장은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가?
- ③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에는 왜 ‘-니까’만 쓰이는가?

먼저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성낙수(1978), 이상복(1981), 양인석(1972) 등의<sup>4)</sup>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 연구(남기

2) 주시경(1910: 83-87)에서는 ‘까닭’ 외에 ‘덩이(고), 잇어함(어서), 그침(다가), 함계(으면서), 풀이(는데), 뒤집힘(이나), 뜻밖(는데), 거짓(으면), 홀로(어야), 하랴함(러)’ 등의 의미 관계로, 박승빈(1910: 346-347)에서는 ‘추론’ 외에 ‘연계(고), 선택(거나), 반의(나), 조건(면)’ 등의 의미 관계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3) 최현배(1937: 367)에서는 ‘까닭’을 ‘사람의 생각의 理由를 보이는 것’, ‘때문’을 ‘자연적, 사회적 事象의 原因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 개념적으로 구분했다. 한편 최현배(1937)에서는 ‘-니까’는 이 외에도 ‘때’를 나타내는 기능(‘내가 가니까, 그가 신문을 보고 있더라.’)을 갖는다고 보았다.



심 1978, 2001, 윤평현 1986, 1989, 2005, 김진수 1987, 성기철 1993, 이은경 1996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가 ‘객관적, 필연적, 보편적’임을 나타내며 ‘-니까’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가 ‘주관적, 개인적, 표면적’임을 나타낸다고 보고 두 연결어미의 차이를 설명한다.

남기심(1978, 2001)에서는 ‘-어서’는 어떤 일의 원인(혹은 때문)을 나타내는데 선행절(원인)과 후행절(당연한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누구에게나 공인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이에 의해 전제되었을 때 쓰인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니까’는 말하는 이의 추리 판단의 결과를 나타낼 때 쓰인다고 보았다.

(8) ㄱ. 비가 와서 길이 질다.

ㄴ.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ㄷ. \*길이 질어서 비가 온 것이 틀림없다.

ㄹ. 길이 지니까 비가 온 것이 틀림없다.

남기심(2001: 268)에서는 비가 온 것이 길이 질게 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는 없으므로 (8ㄱ)은 바른 문장이지만 (8ㄴ, ㄷ)은 비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8ㄹ)은 길이 진 사실로부터 추론해서 비가 온 사실을 알아낸 것이므로 추론에 의해서 이유를 따지는 뜻을 가진 ‘-니까’가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기철(1993: 53-54)에서 지적했듯이 ‘-어서’ 구문의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늘 주어진 원인과 그 당연한 결과로서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성기철(1993: 53-54)에서 제시한 예

4) 성낙수(1978: 39)에서는 ‘-어서’는 개연적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고 ‘-니까’는 필연적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상복(1981)에서는 ‘-어서’는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이고 ‘-니까’는 화자의 추정에 의한 이유(원인)와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양인석(1972: 2)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운데 직접 동기유발(direct motive)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니까’가 가장 자연스럽게 쓰인다고 보았다.

를 보자.

(9) ㄱ. 저 사람은 성격이 물러서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ㄴ. 철호는 아무도 짐작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

(9)에서 성격이 무르고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이 각각 성공하기 어렵고 미국으로 이민 간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관관계가 누구에게나 공인되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sup>5)</sup>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이 ‘-어서’가 쓰였지만 (9)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상관관계의 당연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8ㄱ)과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문장이다.

(10) ㄱ. 비가 와서 길이 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ㄴ. <sup>?</sup>성격이 물러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니까’를 쓴 (11)에서는 선행절(원인)과 후행절(당연한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누구에게나 공인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이에 의해 전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곧 선행절과 후행절이 똑같은데 ‘-어서’가 쓰인 (8ㄱ)에서는 후행절이 선행절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전제되고 ‘-니까’가 쓰인 (11)에서는 왜 그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지 분명하지 않다.

(11) 비가 오니까 길이 질다.

성기철(1993)에서는 ‘-어서’는 대체로 이전의 경험이나 지적 인식에 근거하여 이미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가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그러한 고려가 전제될 때 쓰인다고 보았

5) 성기철(1993: 53-54)에서는 (9ㄱ)은 ‘말하는 이의 추리 판단의 결과’를 말한 것으로서 오히려 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다. 그리고 이 경우 이러한 전제에 따라 화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배후 지식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며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필연성이나 객관성 같은 것이 전제되거나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니까’는 ‘-어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전제에 관계없이 표면적 관계에 대한 화자의 단순 추리를 나타낼 때 쓰인다고 보았다.

- (12) ㄱ. 나는 이것을 먹어서 눈물이 난다.  
 ㄴ. 나는 이것을 먹으니까 눈물이 난다.

성기철(1993: 65-68)에서는 (12ㄱ)의 화자는 사물의 성격 또는 속성상 그것을 먹으면 눈물이 나게 돼 있거나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12ㄴ)의 화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보충자료가 이러한 차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sup>6)</sup>

- (13) ㄱ. \*나는 이것을 먹어서 눈물이 난다. 왜 그런지 이유(또는 원인)를 모르겠어.  
 ㄴ. 나는 이것을 먹으니까 눈물이 난다. 왜 그런지 이유(또는 원인)를 모르겠어.

한편 성기철(1993: 67)에서는 (14ㄱ)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필연성이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어서’가 쓰였으므로 비문이고 (14ㄴ)은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니까’가 쓰였으므로 정문이라고 보았다.

- (14) ㄱ. \*철수가 영수의 머리를 살짝 때려서 기절했어.  
 ㄴ. 철수가 영수의 머리를 살짝 때리니까 기절했어.

6) 본 연구의 관점과 차이는 있지만 (13)은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성기철(1993: 67)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필연성이 없으므로 (14ㄱ)은 쓰일 수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수한 경우 영수의 머리를 살짝 때려서 철수가 기절하게 된 기존의 상황이 전제된다면 쓰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4ㄱ)의 성립이 꼭 동일한 기존 상황의 전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4ㄱ)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는 화자의 믿음만 있다면 기존의 동일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쓰일 수 있고, 또 기존의 동일한 상황이 전제되더라도 그것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는 믿음의 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기철(1993: 65-68)에서는 ‘-어서’ 구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필연성이나 당위성, 보편성, 객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그런 것은 아니며, 또 그러한 속성을 특징으로 하여 ‘-어서’ 문이 ‘-니까’ 문과 변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15ㄱ)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내용상 인과성이 있으며 필연성, 당위성, 객관성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속성이 ‘-어서’와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15ㄴ)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필연성이나 객관성이 있을 수 없고 둘 사이의 관계가 주관적 기분에 의한 것일 뿐이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관계가 두 어미와 선별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sup>7)</sup>

(15) ㄱ. 비가 {와서, 오니까} 옷이 젖었다.

ㄴ. 오늘 날씨가 {흐려서, 흐리니까} 난 기분이 좋아.

7) 이에 따라 성기철(1993: 69-70)에서는 ‘-어서’는 원인과 더 긴밀하게 관련되고 ‘-니까’는 이유와 더 긴밀하게 관련되지만 이들이 각각 이유 또는 원인과 선별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성기철(1993)에서 (15)의 각 문장에서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이 같다고 보는지 다르다고 보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14ㄱ)의 비문법성을 또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필연성이나 객관성이 없다는 점에서만 보면 비문인 (14ㄱ)도 정문인 (15ㄴ)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어서'는 원인을 나타내고 '-니까'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윤평현(2005)도 남기심(1978, 2001), 성기철(1993)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6) ㄱ. ?비가 와서 덥다.  
 ㄴ. 비가 오니까 덥다.

윤평현(2005: 181)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가 올 때 덥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어서'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개인의 추리를 바탕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니까'는 자연스럽게 쓰인다고 보았다. 이는 '-어서'가 자주 쓰이는 문맥과 '-니까'가 자주 쓰이는 문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비록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16ㄱ)이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보편적 원인을 나타내는 '-어서'가 보편적이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어서'는 누구나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하리라는 것을 화자가 전제하지 않더라도 (17)에서처럼 화자가 후행절의 이유가 선행절이라고 혹은 후행절의 이유가 선행절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 (17) ㄱ. (내 생각에는) 비가 와서 더운 게 틀림없어.  
 ㄴ. (내 생각에는) 비가 와서 더운 것 같다.  
 ㄷ. 비가 와서 그런지 덥다

그리고 '-니까'가 '-어서'와 달리 개인의 추리를 바탕으로 이유를 나타내며, 또 그래서 (16ㄱ)보다 (16ㄴ)이 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서'가 쓰인 (17)에서도 화자 개인의 추리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윤평현(1986, 1989, 2005)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의 차이를 화제의 초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점이다. 윤평현(1986, 1989, 2005)에서는 '-어서' 구문에서는 화제의 초점이 선행절

에 있고 ‘-니까’ 구문에서는 화제의 초점이 후행절에 있다는 점에서 두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이 다르다고 보았다.

(18)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①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② ?친구를 만날 일이 있으니까 왔습니다.

(18나①)에서 ‘-어서’ 구문의 화제의 초점이 선행절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윤평현(1986, 1989, 2005: 186-187)에서 지적했듯이 (18나①)에서 선행절을 생략할 수는 없지만 후행절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①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요.

\*왔습니다.

그러나 ‘-어서’ 구문에서는 늘 화제의 초점이 선행절에 있고 ‘-니까’ 구문에서는 늘 화제의 초점이 후행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나)은 ‘-어서’가 쓰였지만 화제의 초점은 후행절에 있고 (20나)은 ‘-니까’가 쓰였지만 화제의 초점은 선행절에 있다.

(19) 가. 어제 뭐 했니?

나. ① 친구가 찾아와서 그냥 집에 있었어.

② 그냥 집에 있었어.

③ \*친구가 찾아와서.

(20) 가. 왜 이 나무만 잘 자라니?

나. ① 물을 자주 주니까 잘 자라더라.

② 물을 자주 주니까.

③ \*잘 자라더라.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 보는 의문문에는 왜 '-니까'만 쓰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 (21) ㄱ. 많이 {‘남아서,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ㄴ. 일이 {‘끝나서,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ㄷ. 철수가 {‘원해서, 원하니까’} 내가 {양보하마, 양보할게}.  
 ㄹ. 비가 {‘와서, 오니까’} 우산을 살까요?

김진수(1987: 93)에서는 '-어서'는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이기 때문에 후행절에 명령형, 청유형, 제안형이 올 수 없고 '-니(까)'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명령형, 청유형, 제안형과 어울린다고 보았다.<sup>8)</sup>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서'와 '-니까'의 의미를 객관성과 확정성을 기준으로 변별하기 어렵고, 또 (21)에서 선행절이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성기철(1993: 59-60)에서는 후행절(명령, 청유, 약속 등)이 선행절이 원인이 되어 결과된 사건이 아니므로 주로 (결과가 전제되는) 원인을 나타내는 '-어서'는 (21)에서 쓰일 수 없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어서'와 '-니까'가 모두 이유 또는 원인을 나타내며 이들이 각각 '이유' 또는 '원인'과 선별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성기철(1993: 69)의 결론과는 맞지 않는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서' 구문과 '-니까' 구문의 (통사적) 특징으로 제시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밝히기에는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어서'와 '-니까'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

8) Ree(1975)와 서태룡(1979)에서도 '-어서'는 확정된 이유를 나타내고 '-니(까)'는 현재의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았다.(이광호 1980: 39-40 참조)

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서’와 ‘-니까’가 모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에서는 왜 ‘-니까’만 쓰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

먼저 ‘-어서’와 ‘-니까’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그 의미 차이를 검토해 보고 두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 (22) ㄱ. 비가 와서 시원하다.  
 ㄴ.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

위의 두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문장으로서 ‘-어서’와 ‘-니까’는 특별한 의미 차이 없이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2)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다시 써 보면 두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ㄱ.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와서 시원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와서 시원하다.  
 ㄴ.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

(22' 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화자가 생각할 때에만 쓰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22' 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전제가 없을 때에도 ‘-니까’는 쓰일 수 있고, 또 ‘-니까’문의 화자는 후행절의, 선행절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화자가 생각할 때에는 ‘-니까’가 쓰일 수 없다거나 ‘-니까’문의 화자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비고 오고 시원한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화자가 (22ㄱ)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22ㄴ)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화자가 생각할 때에만<sup>9)</sup> ‘-어서’가 쓰일 수 있으므로 먼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니까’와 다른, ‘-어서’의 의미 기능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니까’의 의미 기능은 이유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이유에 의해 함의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니까’는 (22ㄴ)에서처럼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화자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쓰일 수 있지만 (22ㄴ)에서처럼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契機)라는<sup>10)</sup>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어서’와 다

9) 심사 과정에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키가 크다.’에서처럼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화자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어서’가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화자 A가 다른 화자 B가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때 ‘-어서’는 화자 A에 의해서 선택되어 쓰인 것이 아니라 화자 B에 의해 선택되어 쓰인 것이며 화자 B가 ‘-어서’를 쓴 것은 선행절(‘날씨가 춥다.’)이 후행절(‘키가 크다.’)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편 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 외 3인편 199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편 1999) 등에 따르면 계기(契機)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발생하는 기회나 근거가 된 어떤 다른 행위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다른 행위나 상태의 발생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꼭 선행절이 후행절에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기(繼起)와는 다르다. 참고로 윤평형(2005: 182-183)에서는 미래의 일은 ‘-어서’의 선행절로 쓰일 수 없다고 보았고 남기삼(1983, 1994: 52-53)에서도 ‘-어서’의 의미 기능인 원인은 두 사건의 계기적(繼起的) 나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왜 가려고 하니?) 오

른, ‘-니까’의 의미 기능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22ㄱ)은 비가 온 것이 시원한 이유라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문장이고 (22ㄴ)은 비가 온 것이 시원한 계기라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문장이다. 이때 (22ㄴ)의 화자가 비가 온 것이 시원한 이유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화자의 생각이 어떠하냐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유가 계기를 함의한다고 해서 ‘-어서’가 쓰인 문장에 늘 ‘-니까’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그러면 ‘-어서’와 ‘-니까’가 쓰이는 문장을 ‘-어서’가 ‘-니까’보다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 ‘-니까’가 ‘-어서’보다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 ‘-어서’와 ‘-니까’가 모두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본 연구의 가정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자.

먼저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화자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혹은 표현해야 하는) 대화 상황에서는 ‘-어서’가 ‘-니까’보다 자연스럽게 쓰여야 한다.

(23) 왜 걸어왔니?

ㄱ.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어.

ㄴ.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왔어.

(23)에서는 화자가 청자가 걸어온 것을 알지만 그 이유를 몰라서 궁금해 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가 걸어온 이유를 물어보고 청자는 그 이유를 들어 화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를 써서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할 때 보통의 경우 ‘-어서’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니까’가 쓰이면 어색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sup>11)</sup>

후에 손님이 {와서, 오니까} 술상을 준비해야 해. ‘어서처럼 선행절이 미래의 일일 때에도 ‘-어서’와 ‘-니까’는 모두 쓰일 수 있다. 한편 계기는 개념상 결과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유보다는 원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당연함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기는 원인과 다르다고 본다.

11) 물론 ‘왜?’에 대한 대답에서 ‘-니까’가 자연스럽게 쓰일 때도 있는데 이에 대해

‘왜?’에 대한 대답이 아니더라도 화자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어서’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니까’가 쓰이면 어색하다.

(24) 어제 어디에 갔었니?

ㄱ.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

ㄴ. ?배가 아프니까(/아팠으니까) 병원에 갔었어.

(25) 철수 어디에 갔니?

ㄱ.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ㄴ. ?배가 아프니까(/아팠으니까) 병원에 갔어.

(26) ㄱ. 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

ㄴ. ?어제 배가 아프니까(/아팠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

(24ㄱ, ㄴ-26ㄱ, 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화자가 후행절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24ㄱ, ㄴ)과 (26ㄱ, ㄴ)에서는 화자와 주체가 같으며 (25ㄱ, ㄴ)은 주체인 철수가 병원에 가면서 그 이유를 화자에게 말해 주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전제될 때 자연스럽게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4ㄱ, ㄴ-26ㄱ, ㄴ)은 주체(화자, 그리고 제3자인 ‘철수’)의 행위를 화자가 청자에게 설명하는 문장이므로 이때 청자의 관심은 행위의 계기가 아니라 행위의 이유에 있다.<sup>12)</sup> 따라서 화자는 (‘-어서’를 써서) 그 이유를 들어 주체의 행위를 청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니까’는 화자가 선행절이 후행

---

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12)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주체의 행위의 이유는 ‘주체’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기는 본질적으로 ‘화자’의 판단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후술할 ‘(영희 왜 갔니?) 비가 오니까 갔어.’에서 비가 온 것이 영희가 간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화자의 생각일 뿐 주체인 영희가 비가 온 것을 계기로 간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체의 행위에 대해 듣고 있는 청자가 주체에 의해 제시된, 행위의 이유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절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하더라도 화자가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화 상황에서는 ‘-어서’보다 자연스럽게 쓰여야 한다.

(27) 영화 왜 갔니?

ㄱ. \*글쎄, 비가 와서 갔어.

\*몰라, 비가 와서 갔어.

ㄴ. 글쎄, 비가 오니까 갔어.

몰라, 비가 오니까 갔어.

‘글쎄, 모르다’는 화자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거나 모를 때 쓸 수 있는 어휘들이다. 따라서 (27ㄱ)에서처럼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할 때에만 쓰이는 ‘-어서’와는 같이 쓰일 수 없다. 그러나 ‘-니까’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가 되었다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낼 뿐 그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27ㄴ)에서처럼 ‘글쎄, 모르다’ 등의 어휘와 같이 쓰일 수 있다.

‘-니까’가 계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서’와 다르다는 것은 다음 예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8) ㄱ. \*길이 진 걸 봐서 비가 왔나 보다.

ㄴ. 길이 진 걸 보니까 비가 왔나 보다.

(29) ㄱ.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고 생각했어.

ㄴ. 길이 지니까 비가 왔다고 생각했어.

(28)은 길이 진 것을 보고 비가 왔다고 생각(추측)한 화자가 자신의 그런 생각을 표현한 문장이다. 그런데 길이 진 걸 보는 것은 비가 왔다고 생각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28)에서 ‘-니까’는 쓰일 수 있지만 ‘-어서’는 쓰일 수 없다.<sup>13)</sup> (28)과 똑같은 상황이 전제될 때 ‘-어서’를 써서 추측의 이유를 표현하려면 (29ㄱ)과 같은 형식의 문장을 써야 한다.<sup>14)</sup>



선어말어미 ‘-더-’와 같이 쓰일 때에도 ‘-니까’가 계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그 나무 잘 자라니?

ㄱ. ?물을 자주 안 줘서 죽더라.

ㄴ. 물을 자주 안 주니까 죽더라.

(31) 철수 지금 뭐 하니?

ㄱ. 일이 많아서 밥도 못 먹고 있더라.

ㄴ. 일이 많으니까 밥도 못 먹고 있더라.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 기능은 화자가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30)에서 물을 자주 안 준 것과 그 나무가 죽은 것 사이의 관계는 화자가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어야 한다. 그 나무가 죽은 것 자체는 이미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는 화자의 믿음이 전제될 때에만 쓰일 수 있으므로 (30)의 대화 상황에서는 선어말어미 ‘-더-’와 같이 쓰이기 어렵다. 그러나 ‘-니까’는 (30ㄴ)에서처럼 선어말어미 ‘-더-’와 같이 쓰여 물을 자주 안 주는 것이 그 나무가 죽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달리 (31)에서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일이 많은 것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계기라는 사실)가 아니라 선행절(일이 많은 것)과 후행절(밥을 못 먹고 있는 것)의 사실이므로 ‘-어서’도 쓰일 수 있다.

윤평현(2005)와 성기철(1993)에서 ‘-니까’는 자연스럽게 쓰이고 ‘-어

- 
- 13) (28)과 똑같은 구조를 갖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눈이 와서(/오니까) 길이 막히나 보다.’와 같이 ‘-어서’도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선행절이 화자의 추측(‘길이 막히나 보다’)의 이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는 상황(‘길이 막히다’)의 이유를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28)과는 다르다.
- 14) (28)과 (29)에서 ‘-어서’와 ‘-니까’의 쓰임의 차이는 (28)은 화자 중심의 문장이며 (29)는 주체 중심의 문장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서'가 쓰이면 어색한 것으로 제시한 예를 살펴보자.

(32) ㄱ. ?비가 와서 덥다.

ㄴ. 비가 오니까 덥다.

(33) ㄱ. \*철수가 머리를 손으로 살짝 때려서 영수가 기절했어.

ㄴ. 철수가 머리를 손으로 살짝 때리니까 영수가 기절했어.

(32ㄱ)과 (33ㄱ)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곧 화자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을 (32ㄱ, 33ㄱ)과 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 청자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자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와 달리 '-니까'는 이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어떠한지와 관계 없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어서'와 '-니까'가 모두 쓰이는 문장에서는 두 문장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는 계기를 함의하므로 '-어서'가 쓰인 문장에서도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로 해석될 수 있고 화자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할 때에도 '-니까'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문장에서 화자의 의도(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라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지)가 다른 만큼 두 문장이 쓰일 수 있는 대화 상황에 차이가 있다.

중결어미 '-을래'를 써서 화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장과 선어말어미 '-겠-'을 써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을 살펴보자.

(34) ㄱ. 철수가 와서 난 {갈래, 가겠다}.

ㄴ. 철수가 왔으니까 난 {갈래, 가겠다}.

(34ㄱ)은 철수를 싫어한다거나 철수와 같이 있기를 꺼린다거나 하는

등 철수가 오는 것이 화자가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될 상황이 전제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와 달리 (34ㄴ)은 화자가 청자에게 철수가 오면 간다고 이미 말을 했다거나 철수를 대신해서 잠시 있기로 했다거나 하는 등 철수가 오는 것이 가겠다고 하는 계기가 될 상황이 전제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리고 전제되는 상황이 다른 만큼 화자의 표현에 대한 청자의 반응도 다를 수 있다.

(35) ㄱ. 왜? 철수랑 무슨 일 있었니?

ㄴ. 그래. 철수가 왔으니까 이제 가렴.

(34ㄱ)에서 철수가 오는 것이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될 상황이 전제된다고 할 때 그 전제되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화자에 의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청자와는 무관한 것이다. 곧 청자에게는 철수가 오는 것이 화자가 가야겠다고 하는 마땅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35ㄱ)에서와 같이 청자는 화자에 의해 전제된 이유를 다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34ㄴ)에서 철수가 오는 것이 가겠다고 하는 계기가 될 상황이 전제된다고 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은 청자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청자는 화자에게 (35ㄴ)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왜?’에 대한 대답에서는 ‘-어서’는 자연스럽게 쓰이고 ‘-니까’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36ㄴ)과 같이 ‘-니까’가 쓰여서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다.<sup>15)</sup>

(36) 왜 걸어왔니?

15) 윤평현(2005: 184-188)에서는 이때의 ‘-니까’ 구문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청자의 뜻에는 개의치 않고 후행절에만 화제의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선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는 ‘-어서’ 구문과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행절은 생략할 수 있지만 선행절은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도 화제의 중심은 선행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왜?’에 대한 대답에서 ‘-니까’가 쓰일 때에는 종결어미 ‘-어’보다는 ‘-지’가 더 자연스럽다.

ㄱ.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어.

ㄴ.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왔어, 걸어왔지.)

그런데 (36ㄴ)은 단순히 걸어온 이유를 밝히는 문장이 아니라 화자가 이를테면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한 걸 왜 물어 보느냐?’는 등의 생각을 덧붙여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서’를 쓴 (36ㄱ)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36ㄴ)은 화자에게 차비가 없다는 것을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대화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리고 이때에는 ‘-니까’ 구문이 ‘-어서’ 구문보다 더 자연스럽다.

(37) 너 여기 왜 왔니?

ㄱ. 철수가 오라고 해서 왔어.

ㄴ. 철수가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

(38) 너 여기 왜 왔니?

ㄱ. ?네가 오라고 해서 왔어.

ㄴ. 네가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

(37)의 대화 상황에서 화자는 철수가 청자를 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알지 못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자의 앎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청자는 ‘-어서’를 쓸 수도 있고 ‘-니까’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38)의 대화 상황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오라고 한 사실이 전제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어서’는 쓰이기 어렵고 ‘-니까’가 쓰여야 자연스럽다.<sup>16)</sup>

물론 화자가 선행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청자에 의해 전제되지 않을 때에도 ‘-니까’가 쓰여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다.

(39) ㄱ. 할머니, 오셨어요?

16) (38ㄱ)도 ‘네가 오라고 해서 왔지.’와 같이 종결어미 ‘-지’를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8)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는 ‘-니까’를 쓴 (38ㄴ)이 더 자연스럽다.



ㄴ. 그래, 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 너 보고 싶으니까 왔다.

(40) ㄱ. 할머니, 왜 오셨어요?

ㄴ. 너 보고 싶어서 왔지.  
 너 보고 싶으니까 왔지.

(39), (40)은 모두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대화인데 '-니까'의 쓰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손자의 질문(혹은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39)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인사말을 하고 할머니가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대화이다. 이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할머니가 손자의 말에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40)은 할머니가 손자의 질문에 불쾌해 하거나 손자를 당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화 상황이다. 곧 (귀여운 손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할머니가 자신의 행위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덧붙여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왜?'에 대한 대답에서 '-니까'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니까'가 쓰여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행절이 계기가 되어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화자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니까'가 쓰인 문장 그 자체에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당연함이 전제되지 않는다. 선행절('비가 오는 것')과 후행절('시원한 것') 사이의 관계에 당연함이 전제된다면 (41ㄱ)과 같은 문장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41ㄴ)과 같이 화자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표현할 때에도 '-니까'는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42ㄱ)에서처럼 '-니까'절도 후행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42ㄴ)과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41) ㄱ.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

ㄴ. 비가 오니까 시원한 것은 당연하다.

(42) ㄱ. \*비가 오니까 시원한 것은 당연한데 비가 와서 시원한 것인지는 모르겠어.

ㄴ. 비가 오니까 시원한데 비가 와서 시원한 것인지는 모르겠어.

이는 ‘왜?’에 대한 대답 문장에서 ‘-니까’가 본래부터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니까’ 자체는 보통의 문장에서처럼 계기의 의미 기능을 갖는데 선행절이 계기가 되어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화자의 생각이 덧붙여지면서 이유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 4. ‘-어서’와 ‘-니까’의 후행절 유형

연결어미 ‘-어서’는 후행절이 평서문과 의문문일 때에는 쓰이지만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 보는 의문문일 때에는 쓰일 수 없다. 이와 달리 ‘-니까’는 후행절의 유형에 관계없이 쓰인다.

(43) ㄱ. 많이 {남아서,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ㄴ. 일이 {끝나서,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ㄷ. 철수가 {원해서, 원하니까} 내가 {양보하마, 양보할게}.

ㄹ. 비가 {와서, 오니까} 우산을 살까요?

(43)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똑같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는 ‘-니까’보다 ‘-어서’가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사실이다.

(44) ㄱ. 많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주니?}.

ㄴ. 일이 끝나서 집에 {간다, 가니?}

ㄷ. 철수가 원해서 {양보한다, 양보하니?}

ㄹ. 비가 와서 우산을 {산다, 사니?}

이는 ‘-어서’와 ‘-니까’의 쓰임의 차이가 단순히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의 차이나 그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후행절의 성격의 차이에서 의해서도 생기는 것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이 평서문, 의문문과 유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이것이 앞서 살펴본 ‘-니까’의 의미 기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43)과 (44)을 다음과 같이 형식을 맞춰서 다시 써 보자.

(43') ㄱ. 많이 {남았으니까,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한다.

ㄴ. 일이 {끝났으니까, 끝나서} 집에 가자고 말한다.

ㄷ. 철수가 {원하니까, 원해서} 내가 양보하마고 말한다.

ㄹ. 비가 {오니까, 와서} 우산을 사느냐고 말한다.

(44') ㄱ. 많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고, 주느냐고} 말한다.

ㄴ. 일이 끝나서 집에 {간다고, 가느냐고} 말한다.

ㄷ. 철수가 원해서 {양보한다, 양보하느냐고} 말한다.

ㄹ. 비가 와서 우산을 {산다, 사느냐고} 말한다.

(43')에서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43)에서와 달리 ‘-니까’뿐만이 아니라 ‘-어서’도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예를 들어 (43' ㄱ)이 (43" ㄱ①)이 아니라 (43" ㄱ②)와 같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서’절은 명령문의 선행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 (44' ㄱ)을 분석한 (44" ㄱ)을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3' ㄱ) ①\*[[많이 {남았으니까,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한다.]

= [내가 말하는 것]은 [많이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것이다.

② [많이 {남았으니까,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한다.]

=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44"ㄱ) ① [[많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고 말한다.]

= [내가 말하는 것은 [많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는 것이다.

② \*[많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고 말한다.]

=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고 말하는 것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43"ㄱ)은 (43ㄱ)에서 선행절('많이 남은 것')이 후행절 주체의 행위('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행위('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하는 것', 곧 명령)와 관련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44"ㄱ)은 (44ㄱ)에서 선행절('많이 남은 것')이 화자의 행위('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하는 것')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후행절 주체의 행위('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와 관련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차이는 (43ㄴ-ㄷ)과 (44ㄴ-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3"ㄴ) [일이 {끝났으니까, 끝나서}] [집에 가자고 말한다.]

= 집에 가자고 말하는 것은 일이 끝났기 때문이다.

(44"ㄴ) [[일이 끝나서 집에 간다]고 말한다.]

= 내가 말하는 것은 일이 끝나서 집에 간다는 것이다.

(43"ㄷ) [철수가 {원하니까, 원해서}] [내가 양보하마고 말한다.]

= 내가 양보하마고 말하는 것은 철수가 원하기 때문이다.

(44"ㄷ) [[철수가 원해서 양보한다]고 말한다.]

= 내가 말하는 것은 철수가 원해서 양보한다는 것이다.

(43"ㄷ) [비가 {오니까, 와서}] [우산을 사느냐고 말한다.]

= 우산을 사느냐고 말하는 것은 비가 오기 때문이다.

(44"ㄷ) [[비가 와서 우산을 사느냐]고 말한다.]

= 내가 말하는 것은 비가 와서 우산을 사느냐는 것이다.

(43"ㄱ-ㄷ)과 같은 분석은 '-어서'절이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



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의 선행절이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서’절이 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향을 물어보는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43'')에서 청자의 행위(‘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는 명령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계기나 이유(‘많이 남은 것’)는 궁극적으로 명령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은 후행절의 성격에 있어서도 평서문, 의문문과는 다른 유형적 공통성을 갖는다. 똑같이 명령, 제안, 약속, 의향을 물어보는 것을 포함하지만 ‘-어서’와 ‘-니까’의 쓰임이 다른 (45=43)와 (46=43')을 비교해 보자.<sup>17)</sup>

(45) ㄱ. 많이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ㄴ. 일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ㄷ. 철수가 원하니까 내가 양보하마.

ㄹ. 비가 오니까 우산을 살까요?

(46) ㄱ. 많이 {남았으니까, 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다.

ㄴ. 일이 {끝났으니까, 끝나서} 집에 가자고 했다.

ㄷ. 철수가 {원하니까, 원해서} 내가 양보하라고 했다.

ㄹ. 비가 {오니까, 와서} 우산을 사느냐고 했다.

(45)와 (46)의 두드러진 차이는 (45)는 ‘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사를 묻는 행위’ 그 자체를 표현하고 (46)은 ‘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사를 묻는 행위를 하는 일’을 표현한다는 점이다.<sup>18)</sup> 예를 들어 (45ㄱ)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명령 그 자체를 표현하는 문장이고 (46ㄱ)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명령을 하는 일을 표현하는 문장이

17) (44)와 같은 보통의 평서문에서 ‘-어서’와 ‘-니까’의 쓰임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45)와 (46)을 중심으로 ‘-어서’와 ‘-니까’의 쓰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18) 성기철(1993: 59-60)에서도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에서 후행절은 선행절이 원인이 되어 결과된 ‘사건’이 아니라 명령, 청유, 약속의 문일 뿐이고 이를 옮겨 이야기하는 문장에서 후행절은 선행절의 결과적 사건(현상)이라고 보았다.

다. 따라서 (45)는 (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사를 묻는 사람이 화자이므로) 화자 중심의 표현이고 (46)은 (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사를 묻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주체 중심의 표현이다.<sup>19)</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은 후행절이 화자 중심의 표현으로서 선행절이 화자의 행위(명령, 제안, 약속, 의향을 물어봄)와 관련된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후행절이 주체 중심의 표현으로서 선행절이 후행절 주체의 행위(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향을 물어보는 일)와 관련되는 평서문, 의문문과 유형적 차이를 보인다.

‘-어서’와 ‘-니까’의 쓰임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유형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후행절의 성격,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중심으로 명령문과 이에 대응하는 평서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47) ㄱ. 많이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ㄴ. 많이 {남아서,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다.

명령문은 화자 중심의 표현으로서 선행절이 화자의 행위(명령)와 관련된다. 따라서 선행절에 ‘-어서’를 쓸 것인지 ‘-니까’를 쓸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선행절이 (화자의) 명령의 계기가 되었는지 이유가 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47ㄱ)은 많이 남은 것을 아는(혹은 알게 된) 화자가 청자에게 나눠 주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한 문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47ㄱ)에서 선행절은 명령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명령의 계기가 된 것이다. 명령문의 선행절이 명령의 계기라는

19) (46)의 후행절의 주체는 화자일 수도 있지만 화자가 아닐 수도 있다. (46)은 화자가 자신이 한 일을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문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6ㄱ)이 ‘너 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니?’에 대한 대답이라면 후행절의 주체는 화자이지만 ‘철수가 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니?’에 대한 대답이라면 후행절의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철수’이다. (46)을 주체 중심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것은 다음 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48) 많이 남은 거 아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48)은 특별한 대화 상황이 전제될 때<sup>20)</sup>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많이 남은 것을 아는 화자가 청자에게 나눠 주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한 문장이라는 점에서는 (47ㄱ)과 같다. 그런데 (48)에서 선행절 ‘많이 남은 것을 아는 것’은 명령의 계기는 될 수 있어도 명령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명령문의 선행절에 ‘-니까’만 쓰이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한편 평서문은 주체 중심의 표현으로서 선행절이 주체의 행위와 관련된다. 따라서 선행절에 ‘-어서’를 쓸 것인지 ‘-니까’를 쓸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화자가 선행절이 후행절(주체의 행위, 곧 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향을 물어보는 일)의 이유라고 생각하는지 계기라고 생각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47ㄱ)과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옮겨 이야기할 때 꼭 (47ㄱ)과 같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화자에게는 선행절이 명령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청자는 이를 화자가 명령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7ㄴ)은 다음과 같이 ‘왜?’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는 문장, 다시 말해 청자의 관심이 후행절의 이유에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화자가 그 이유를 들어 청자에게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이야기하는 평서문에서 예를 들어 (49)에서처럼 ‘-어서’와 ‘-니까’가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sup>21)</sup>

20) 이를테면 청자가 많이 남은 사실을 숨긴다거나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상황이 전제된다. 물론 이러한 것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화자는 (47ㄱ)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1) (49ㄴ)에서 ‘-니까’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유가 당연한

(49) ㄱ. 철수가 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니?

ㄴ. 많이 남아서 나눠 주라고 했어.

많이 남았으니까 나눠 주라고 했지.

이렇게 (45)에서처럼 선행절이 화자의 행위(명령, 제안, 약속, 의향을 물어봄)의 계기가 되었다라도 (46)에서처럼 청자가 이를 명령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의향을 물어보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5)의 선행절이 주체의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8)처럼 선행절이 주체의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문장은 (50ㄱ)처럼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때에는 (50ㄴ)처럼 옮겨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0) ㄱ. ?많이 남은 걸 {알아서, 알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다.

ㄴ. 많이 {남아서,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다.

그리고 (49ㄴ)이 ‘너 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니?’와 같이 행위의 주체가 화자일 때에도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 또한 선행절이 주체의 행위(명령을 한 일)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명령문은 화자 중심의 표현으로서 선행절이 화자의 행위인 명령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니까’를 써서 표현하고 청자가 그 이유를 물어서 이에 대답하는 문장에서는 ‘-어서’를 써서 선행절이 명령을 한 이유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 5. 결론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는 의미 차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서로 교

---

것이라는 생각을 화자가 덧붙여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왜?’에 대한 대답에서도 ‘-니까’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체되어 쓰이지 않을 때도 있다. 특히 ‘왜?’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때에는 ‘-어서’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니까’는 자연스럽게 쓰이지 못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어서’는 후행절이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 보는 의문문일 때에는 쓰일 수 없지만 ‘-니까’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의미 기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왜 어떤 문장에서는 ‘-어서’가 더 자연스럽게 쓰이고 어떤 문장에서는 ‘-니까’가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가? 둘째, ‘-어서’와 ‘-니까’가 모두 쓰이는 문장은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에는 왜 ‘-니까’만 쓰이는가?

‘-어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화자가 생각할 때에만 쓰일 수 있지만 ‘-니까’는 이런 전제가 없을 때에도 쓰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화자가 생각할 때에는 ‘-니까’가 쓰일 수 없다거나 ‘-니까’문의 화자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비가 오고 시원한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화자가 ‘비가 와서 시원하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까’의 의미 기능은 이유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이유에 의해 함의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서’의 의미 기능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며 ‘-니까’의 의미 기능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契機)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곧 ‘비가 와서 시원하다.’는 비가 온 것이 시원한 이유라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문장이고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는 비가 온 것이 시원한 계기라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본다. 이때 ‘-니까’가 쓰인 문장에서 화자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화자의 생각이 어떠하냐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유가 계기를 함의한다고 해서 ‘-어서’가 쓰인 문장에 늘 ‘-니까’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니까’는 계기를 나타내므로 ‘왜?’에 대한 대답에서 쓰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왜 걸어왔니?)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왔지.’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쓰일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니까’가 본래부터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니까’ 자체는 보통의 문장에서처럼 계기의 의미 기능을 갖는데 선행절이 계기가 되어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화자의 생각이 덧붙여지면서 이유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은 화자 중심의 문장으로서 선행절이 화자의 행위(명령, 제안, 약속, 의향을 물어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체 중심의 문장으로서 선행절이 주체의 행위와 관련되는 평서문, 의문문과 다르다. 예를 들어 ‘많이 남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에서 선행절 ‘많이 남은 것’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화자의 명령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 문장은 많이 남은 것을 아는(혹은 알게 된) 화자가 청자에게 나눠 주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한 문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선행절은 화자에게 명령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명령의 계기가 된 것이다.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에서 ‘-니까’가 쓰이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 참고문헌

- 강기진(1985), 국어 접속어미 ‘-니’와 ‘-니까’의 연구, 《국어학》 14, 국어학회, 265-286.  
 국립국어연구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민수의 3인편(1992),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김수정(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연구》, 한국문화사.  
 김승곤(1980), 연결형 어미 ‘-니까’와 ‘-아서’의 화용론 재론, 《난정 남광우 박사

-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55-170.
- 김진수(1987),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1978), '-아서'의 화용론, 《말》 3, 연세대 한국어학당, 9-20.
- 남기심(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고, -어서, -니까, -다가'의 의미·통사적 특징-》, 서광학술자료사.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Lukoff, F.(1983),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니까'의 구문과 '-아서'의 구문, 《국어의 통사·의미론》(고영근·남기심편), 탑출판사, 2-27.
- 박승빈(1935), 《조선어학》, 경성: 조선어학연구회.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50, 탑출판사, 재록.
- 서정수(1971), 국어의 용언 어미 {-어(서)}-변형·생성 문법적 분석,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201-228.
- 서태룡(1979), 국어접속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0.
- 성기철(1993), '-어서'와 '-니까'의 변별적 특징, 《주시경학보》 11, 주시경연구소, 50-72.
- 성낙수(1978),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문 연구(1), 《연세어문학》 11, 연세대학교, 23-39.
- 양인석(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서울대 어학연구소, 1-25.
- 윤평현(1986), 이유·원인 연결 어미에 대한 연구, 《어문논총》, 전남대 국어국문학회 9, 111-135.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의미론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이광호(1980), 접속어미 「-면」의 의미기능과 그 상관성, 《언어》 5-2, 한국어어학회, 33-65.
- 이상복(1978),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아서」를 중심으로, 《말》 3, 연세대 한국어학당, 59-80.
- 이상복(1981), 연결어미 「-아서」, 「-니까」, 「-느라고」, 「-므로」에 대하여, 《배달말》 5, 배달말학회, 81-101.
-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2007), 「-어서」절과 「-니까」절의 서술어 유형,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221-248.
- 장경희(1993), 「-니까」의 의미와 그 해석-{-어서}와 대비하여, 《선청어문》 21, 서

올대 사대, 337-367.

장경희(1994), '-어서'의 의미와 화용상의 해석, 《텍스트 언어학》 1,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169-200.

주시경(1910), 《국어문법》, 경성: 박문서관.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1-10, 탑출판사, 재록.

최현배(1937), 《우리말본》. 경성: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1-47, 탑출판사, 재록.

한글학회편(1991), 《우리말큰사전》, (주)어문각.

한동완(1989), '-으니' 접속 구성의 의미에 대한 일고찰-시제 현상을 중심으로-, 《이정정연찬선생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974-995.

황화상(2004), 《한국어 전산 형태론》, 도서출판 월인.

Ree Jungno(1975), A Semantic Analysis of (u)ni and (e)se, 《어학연구》 11-1, 서울대 어학연구소, 69-75.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55) 213-3106

E-mail: hhs2004@changwon.ac.kr

투고 일자: 2008. 2. 26.

게재 확정 일자: 2008. 3. 25.